

#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세션 15, 고고학과 이스라엘 군주제의 부상, 사울.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세션 15, 고고학과 이스라엘 군주제의 발흥, 사울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나 바다 민족에 관한 또 다른 몇 장의 슬라이드로 고고학과 이스라엘 군주제의 부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아는 한, 블레셋 사람들은 육로로도 물론 확실히 바다로도 후기 청동기 시대 말에 가나안 해안 도시들을 침략하여 느슨하게 연합된 그리스 폴리스와 같은 5개의 수도 또는 진원지를 세웠으며,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땅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동쪽으로 밀고 나가기를 원한 반면, 산간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펠라나 산기슭에 있는 동일한 땅을 얻기 위해 서쪽으로 밀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열두 지파, 특히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이트별로 가서 블레셋과 주요 블레셋 유적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시장에 대한 예술가의 묘사가 있습니다. 아스글론은 아마도 가장 광범위하게 발굴된 블레셋 도시 중 하나일 것이며, 다시 일부 블레셋 도자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블레셋 고고학자들의 생각은 가나안의 진원지, 즉 가나안의 큰 도시들이 후기 청동기 시대 말인 1200년경에 파괴되고 그 후 1200년 경에 바다 민족들이 다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물질문화를 지닌 에게해. 그리고 이들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집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Ekron입니다. 우리는 Tel Miqne에서 발견된 거대한 사원에 대한 예술가의 표현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대학의 프로젝트 디렉터인 Seymour Gittin과 고 Trudy Dotan입니다.

이것은 발굴이 끝날 무렵에 발견되어 그 장소를 식별하는 위대한 비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에그론과 아기스(Achish)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 물론 그것은 성경의 이전 문맥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Tel Miqne의 Ekron도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상부 도시가 있었지만 7세기에 그 도시는 확장되어 중동에서 가장 큰 올리브 오일 생산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아마도 우리가 아는 한 최대 규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드를 여러 번 보았으며 또 다른 9세기 블레셋 도자기 집합체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단과 가드나 텔에스사피 유적지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오스트라콘을 들고 있는 굴착기입니다. Bar-Ilan University의 Aaron Mayer입니다.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다시 이것은 최근에 발견된 아스돗 성벽 밖에 있는 아시리아 행정 중심지입니다.

물론 아스돗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신이 아스돗에서 발견되었는데, 굴착기인 모세 도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진행된 발굴 작업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아스돗도 해안 도시이긴 하지만 해안에 바로 붙어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해당 부지와 해안을 분리하는 거리는 몇 마일, 몇 마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사용되던 아스돗얌이라는 항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은 해안선에 바로 붙어 있는 매우 중요한 블레셋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기 청동기 시대의 해자와 일련의 벽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활 모양의 벽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굴된 해자와 이곳의 글로세안 성벽, 그리고 복원된 중청동문. 따라서 매우 대규모 발굴이자 자금이 풍부한 Ashkelon에서 많은 흥미로운 발견이 이루어졌으며 다시 왼쪽의 Larry Stager가 이끌고 Dan Master가 그 뒤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이곳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다른 해안 도시인 가자(Gaza)는 오늘날까지 건설되었기 때문에 잘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섯 개의 도시 국가나 일련의 폴리스, 또는 복수형의 폴리스가 무엇이든 간에 왕이 아닌 영주, 히브리어로 사론이 통치하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사론(Saron)은 히브리어로 음역된 용어, 아마도 에게 해 용어였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야금술이 매우 발전했고 처음에는 철을 독점했기 때문에 모든 블레셋 군대는 철 창, 철 칼, 철 무기를 장비한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적들은 청동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농부가 사무엘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철 쟁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내려가서 블레셋 대장장이에게 그 쟁기를 갈거나 수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 쟁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블레셋 사람들은 물질 문화, 건축, 도기 분야에서 고도로 발전했거나 실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 시대의 파리와 뉴욕과 문화적으로 동등했습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고대 영어, 블레셋에서 이 용어는 교양이 없거나 천박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는 촌놈, 즉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교양 있고 상류층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삼손이나 누군가가 시골의 소박한 언덕 마을에 살고 팀나나 에그론이나 가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환상적인 사원과 건축물과 밤의 유흥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레셋 유적지에서 발굴한 물질문화와 유물에 의해 제시된 생각입니다. 아주, 아주 발전했어요. 블레셋 도자기는 다양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온라인에서 가져온 약간의 웃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블레셋 도자기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단색토기였는데, 이는 에게해의 미케네토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 다음 바이크롬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 블레셋 장식 도자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 블레셋 도자기가 발전한 단계와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맥주병과 다른 형태의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비슷한 목적, 즉 등자 항아리와 분화구 등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민족의 도자기와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형태, 제조, 도자기의 실제 구조 및 마감면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돌아가 이전에 방문했던 장소인 Ispit sarda로 돌아갑니다. 정말 대조적입니다.

이것이 방이 4개인 집과 그곳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콘입니다. 이스라엘 부족들은 매우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결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물질 문화는 다시 말하지만 매우 실용적이며 사용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아름다움이나 예술적 외관이 전혀 아닙니다. Shiloh의 사진이 다시 두 장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스캇,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는 ABR, Stripling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스캇 스트리플링(Scott Stripling)은 실로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성막이 세워진 곳, 곧 만남의 천막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방주 이야기는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방주를 빼앗았다가 소렉 골짜기를 거쳐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전에 기랴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상자에 갇혀 있지 않으신지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와 함께한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파괴되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 배웠습니다. 그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실제로 발굴 결과에 따르면 실로 자체는 당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곧바로 산간 지방으로 올라와서 실로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이 시기, 사사 시대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 사이의 일종의 과도기로서 사무엘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파들은 비틀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권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을 읽어보자. 이를 옆두에 두고 우리는 군주제의 고고학을 연구할 수 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다스릴 왕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일이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을 몰고 섬기게 할 것이며, 그들은 자기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은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갈고 수확을 거두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 무기와 병거 장비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너희 딸들을 데리고 향료 만드는 일과 요리하는 일과 빵 굽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수종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너희 곡식과 너희 포도 수확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의 신하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가장 좋은 소와 나귀를 자기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는 너희 양떼의 십분의 일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이르면 너희가 너희가 택한 왕에게 부르짖어 구원을 구할 것이나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우리가 우리 위에 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신지라 그리고 그 왕은 물론 베냐민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이는 모든 면에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키가 크고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기브아 또는 기밧 사울이라는 곳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곳은 예루살렘 북쪽 라말라로 가는 길에 있는 텔엘풀(Tel el-Ful) 유적지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후세인 왕의 미완성 궁전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궁전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예술가의 묘사입니다. Hussein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는 Albright에 의해, 그 다음에는 Paul Lapp에 의해 한쪽 모퉁이, 탑 및 몇 개의 다른 벽만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브라이트의 경우 기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층위학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의 전체 역사를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망대 모퉁이에 대한 훌륭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모두 인구가 많은 건물, 고층 건물 및 그 밖의 모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또, 여기에는 신학과 신앙의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 데이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 무렵, 분쟁의 양측에서 나온 챔피언, 즉 두 군대가 나가서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공격한다는 생각은 에게해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학자와 문헌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민족이나 에게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용병이었고 아마도 현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드 출신이었는데 아마도 그의 조상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오기 전에 가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창세기와 다른 본문에 언급된 거인, 즉 네피림이나 아낙의 아들, 아나킴과 다른 사람들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아주 아주 큰 사람이었던 그들의 후손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엘라 계곡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라인업과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벌어진 개인적인 전투가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을 섬기자 사울은 시기하여 다윗이 추종자들인 다윗의 개인 군대를 이끌고 조직하여 유다 광야, 예루살렘 동쪽 지역과 베들레헴과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숨기 좋은 곳이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그들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가드로 건너가서 가드 왕 아기스를 섬기다가 다윗의 성읍 부지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말렉 정착지를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블레셋 치하에서 그의 경력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와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동행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렇게 할 만큼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혼에서 초대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사울은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은 길보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왕으로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길보아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사울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세션 15, 고고학과 이스라엘 군주제의 발흥, 사울입니다.